

롤드컵? 배틀그라운드?... 설레는 e스포츠팬들

11월, e스포츠의 계절이 온다

롤드컵 결승 11월4일...SKT·루주 순항 ‘배틀그라운드’ 지스타서 e스포츠 시동 서머너즈워·펜타스톰 글로벌 대회 눈길



e스포츠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대회가 11월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먼저 전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2017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이하 롤드컵) 결승이 11월4일 중국 베이징 국립 경기장에서 열린다. 지난 8일 끝난 그룹 스테이지 1라운드에선 한국팀들이 잇단 승진보를 전하며 5회 연속 우승의 청신호를 켜다.

3회 연속 우승과 총4회 우승을 노리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최강 SK텔레콤T1과 최근 국내 리그에서 SK텔레콤T1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이번의 주인공 롯데제이밍이 3전 전승 소식을 전했다. 삼성갤럭시의 경우 중국의 로얄너버기



세계적인 대회인 ‘롤드컵’ 결승부터, 새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틀그라운드’의 국내 첫 대회까지 11월 다양한 e스포츠 이벤트가 팬들을 열광케 할 전망이다. 컴투스의 모바일게임 ‘서머너즈 워’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대회 ‘SWC’의 LA 본선 현장.

사진제공 | 컴투스

브업에 패하며 2승1패로 조 2위를 기록 중이다. 2라운드에는 12일부터 15일까지 중국 우한 스포츠센터에서 치러진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각 조 상위 2개팀이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8강은 19일부터 22일까지 중국 광저우 체육관에서 치러지고 4강은 28일과 29일 중국 상하이 오리엔탈 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기존 인기 종목에 도전장을 내는 새 국산 PC 온라인게임의 e스포츠화도 11월 시도된다. 세계 최대 PC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유료테스

트 버전을 출시한 뒤 1300만장 판매고를 돌파한 화제의 ‘배틀그라운드’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 국내 e스포츠계가 가장 주목하는 게임 중 하나이기도 하다. 개발사 블루홀은 11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7’ 현장에서 ‘2017 배틀그라운드 아시아 인비테이셔널 at G-STAR’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배틀그라운드 아시아 인비테이셔널은 아시아 최고수 20팀 80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룬다.

게임 시장의 대세가 된 모바일게임의 e스포츠화 가능성 엿보기도 속도를 더한다.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한 대회가 연이어 열릴 예정이다. 넷마블게임즈는 ‘펜타스톰’의 아시아전 본선과 결승을 11월 24일과 25일 서울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개최한다. 한국을 비롯해 대만,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5개국에서 선발된 팀들이 우승을 위해 경쟁을 펼친다.

컴투스의 글로벌 인기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의 e스포츠 대회 ‘2017 서머너즈 워 월드아레나 챔피언십’(SWC)도 순항 중이다. 지난 추석 연휴 LA와 뉴욕, 파리, 도쿄 등 지역 본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해당 지역 대표 선발을 완료했다.

LA와 뉴욕 본선엔 수백 명이, 파리 본선엔 1000여명 이상의 관객들이 현장 응원을 펼쳤다. SWC 서울 본선은 오는 14일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세계 16명의 지역 대표가 한자리에 모이는 ‘월드 파이널’은 11월 25일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 씨어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CJ제일제당, HMR 통해 글로벌 리딩 기업 꿈꾼다

(가정간편식)

연구개발 2000억 투자...차별화된 맛 구현 2020년까지 HMR 매출 3조6000억 목표 햇반·비비고·고메 등 3대 핵심 브랜드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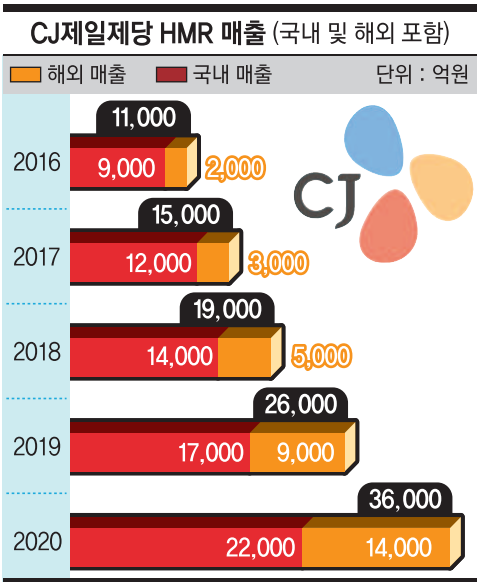


‘3대 핵심 HMR 브랜드 통해 2020년까지 매출 3.6조원, 글로벌 매출 비중 40%까지 확대’

유통 CJ제일제당은 11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진행한 ‘CJ HMR 쇼케이스’에서 이같은 HMR(Home Meal Replacement, 가정간편식) 사업 비전을 발표했다.

CJ제일제당의 HMR 사업은 “음식도 문화이며 R&D를 통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첨단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는 이재현 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을 담고 있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강신호 식품사업부문장은 “HMR 사업을 키우기 위해 5년간 1200억원을 투자해 브랜드와 R&D, 제조기술을 차별화하는데 매진했다”며 “햇반 집반, 비비고, 고메 등 온리 원(ONLYONE) 브랜드를 탄생시켜 국내 식문화의 지평을 넓혔고, 미래 식품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해왔다”고 강조했다.



●‘햇반’, ‘비비고’ 등 핵심 HMR로 매출 1조원 돌파 CJ제일제당은 ‘햇반’, ‘비비고’, ‘고메’ 등 3대 핵심 HMR 브랜드를 앞세워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는 전년보다 약 40% 성장한 1조5000억원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21년 전 시장에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던 ‘햇반’을 통해 즉석밥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일구고 관련 산업을 키워 소비자



11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 ‘CJ HMR 쇼케이스’에서 CJ제일제당 식품사업부문장 강신호 부사장이 CJ제일제당 HMR사업 비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CJ

입맛을 바꾼 식문화 혁신이 ‘비비고’와 ‘고메’ 등 다양한 제품으로 이어진 결과다.

CJ제일제당은 HMR 사업을 더욱 확대해 2020년에는 국내외 매출 3조6000억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새로운 식문화 트렌드를 만들고, 세계 대에서는 혁신기술과 R&D 기반의 제품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복안이다.

●병동·상온 HMR 제품 개발에 박차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연구개발에 총 2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압도적 R&D 및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식품시장의 판도를 바꿀 차별화된 병동, 상온 HMR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신기술도 확보했다. 대표적인 신기술로 특수살균, 원재료 특성 보존, 영양균형 구현 등을 꼽을 수 있다. 원재료 본연의 맛과 특성, 신선도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영양 균형 및 건강까지 고려한 CJ제일제당의 혁신 기술이다.

조리시간 단축 및 조리품질 균일화가 가능한 패키징 기술 개발도 주력하고 있다. 조리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조리도구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전자레인지용 HMR’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5400억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인천 식품 통합생산기지가 2018년 말 본격 가동하면 제품의 품질력을 높이고 가격경쟁력까지 강화하게 된다.

‘햇반’과 ‘비비고’, ‘고메’를 HMR 핵심 브랜드로 육성해 내식의 간편화, 외식의 내식화, 한식의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생산기지를 확보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한식 대표 메뉴인 밥과 찌개, 만두, 비빔밥, 불고기 등을 HMR 제품으로 개발해 현지인 입맛을 사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하림그룹 주력 계열사 팜스코가 인수한 인도네시아 사료공장. 인니 서부자바 세람 지역에 위치한 이 공장은 연간 생산능력이 50만톤에 이르며, 항구에 인접해 최상의 사업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제공 | 하림그룹

하림그룹, 인도네시아에 사료·중계시장 본격 진출

팜스코, 수자야그룹 사료·중계 부문 인수

하림그룹이 아시아 최대 경제권인 인도네시아의 사료 및 중계(병아리용 계란 생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인구 2억6000만명의 세계 4위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는 5%대 경제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아시아 신흥국의 선두 국가다. 하림그룹 주력 계열사인 팜스코는 11일 인도네시아 축산기업 수자야그룹의 사료 및 중계 사업부문을 최종 인수해 현지 경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팜스코는 운영자금을 포함해 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림그룹은 한국형 육계 계열화 시스템을 인

도네시아에 본격 이식하며 닭고기 사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됐다. 하림그룹은 한국형 축산 계열화 시스템을 인도네시아에 조기 정착시켜 동남아 육류 단백질 시장 공략의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팜스코 관계자는 “현지에서 축적한 옥수수 사업의 현장경영 노하우와 하림그룹의 검증된 육계 계열화 시스템이 접목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사료 및 중계 시장 진출을 시작으로 육계 사육까지 1차 확대하고 향후 도계,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계열화 시스템을 전개하는 방안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구스아일랜드 ‘옥tober베스트 페스티벌’ 진행

한정판 병맥주 ‘페스트 비어’ 출시

크레프트 비어 ‘구스아일랜드’가 세계 최대의 맥주 축제인 옥tober페스트 기간을 맞아 10월 한 달간 다채로운 맥주 축제를 진행한다.

우선 시즌 한정판 가을 맥주 ‘구스아일랜드 페스트 비어’ 병맥주를 출시했다. 양질의 맥주를 얻을 수 있는 3월에 양조해 4~5개월 간의 숙성기간을 거쳐 가을에 즐기는 ‘메르첸 스타일’ 맥주다. 구운 맥아와 신선하게 구운 호밀 빵의 맛이 느껴지는 가벼운 바디감의 독일식 라거로 1월까지 대형마트와 바블샵에서 5개월간 한정 판매한다. 알코올 도수는 5.7도 용량은 355ml이다.

또한 서울 역삼동 ‘구스아일랜드 브루 하우스’에서는 독일 뮌헨의 슈파텐 양조장과 합작한 옥tober페스트 기념 맥주 ‘켈러 메르첸’을 드래프트(생맥주)로 선보인다. ‘켈러 메르첸’은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아 살아 있는 효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메



독일 현지 맛 그대로 재현한 구스아일랜드의 옥tober페스트 한정판 페스트 비어 병맥주와 켈러 메르첸 생맥주.

사진제공 | 구스아일랜드

르첸 스타일의 독일식 라거다. 맥아의 풍미와 은은하게 퍼지는 달콤함이 특징으로 가벼운 바디감과 부드러운 목넘김을 자랑한다. 50L 대형 케그도 한정 판매되며, 알코올 도수는 6.3도이다.

28일과 29일에는 가평에 있는 캠프트 아일랜드에서 축제의 정점을 찍을 ‘옥tober 베스트’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한정판 ‘구스아일랜드 페스트 비어’와 페어링을 이룰 다양한 푸드트레이가 마련되며, 가을에 어울리는 뮤지션들의 공연도 열린다.

원성열 기자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1일

코스피지수	2458.16	▲	+24.35
코스닥지수	662.31	▲	+7.72
日 닛케이 지수	2만881.27	▲	+57.76
中 상하이 종합	3388.28	▲	+5.29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93	▼	-0.01
환율 (원·달러)	1135.00		0
국내금값 (원/그램 g)	4만7050.12	▼	-38.14

오늘의 얼굴

윤석현 위원장 “케이뱅크 인가 부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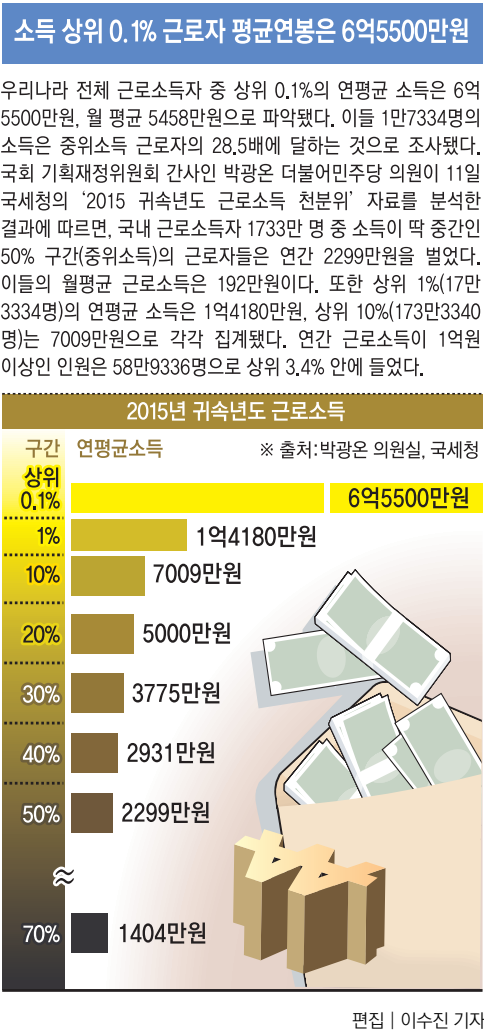
금융계에 돌풍을 일으킨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에 대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이하 금융혁신위)가 인가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윤석현 금융혁신위원장(사진)은 11일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한 1차 권고안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금융혁신위는 8월 말 금융위가 금융개혁을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 13명을 위촉해 구성된 외부 자문단이다. 금융혁신위는 우리은행이 금융위의 은행법 시행령 유권해석으로 특혜를 받아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요건을 확보했다는 논란에 대해 “금융위의 유권해석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권별 인가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 재량권 행사의 세부기준을 담은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공개하라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했다. 금융혁신위는 케이뱅크 인가의 적절성 여부를 점검해 12월 최종보고서에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비즈 TALK TALK

●“무리한 담뱃값 인상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반면, 담배회사들은 여전히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겨가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담배회사의 재무제표 분석 결과를 지적하며)
●“재벌을 해체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며, 그 보다는 재벌가의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이다.” (김강조 공정거래위원장, 11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데이터 경제



편집 | 이수진 기자